

‘신진 건축사 * 설계공모’의 성과와 한계

김용수

국토교통부 건축문화경관과 사무관

신진 건축사 육성정책 추진 배경

‘물이 고이면 썩는다’라는 격언에서 알 수 있듯이 어떤 분야든지 잠재력을 겸비한 ‘젊은 피’의 끊임없는 도전이 없다면 지속가능한 발전을 기대할 수 없다. 이러한 신진들의 도전정신은 기성세대 주도의 기존 무대에 활력이 됨은 물론이고, 이를 통해 우수한 신진들 스스로가 해당 분야의 소중한 미래자산으로 성장해 나갈 수 있다. 이렇듯 신진의 적극적인 발굴과 육성은 비단 ‘감성적으로 옳은 것(right thing)’이기 때문만이 아니라 ‘전략적으로 옳은 것(smart thing)’이기에 반드시 필요하다.

어느새 우리나라 산업계 전반에는 소위 ‘승자 독식(The winner-take-all)’ 현상이 고착화되고 있다. 이는 건축설계업계에서도 예외는 아니어서 직원 수 100인 이상의 대형 업체가 전체 매출의 절반 가까이 차지하고 있고, 이러한 불균형 상황은 나날이 심화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렇게 기득권이 공고한 독과점의 폐해는 여러 가지인데, 그중에서도 높은 진입장벽으로 인해 신진들의 역량과 가능성이 사장(死藏)되는 것은 해당 산업뿐만 아니라 국가적으로도 큰 손실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국토교통부는 ‘파레토 법칙(Pareto’s law)’과 ‘롱테일 법칙(Long tail theory)’의 공존을 통한 건축설계업의 건강한 성장을 목표로 수년 전부터 신진 건축사 육성정책을 본격 추진하고 있다.

신진 건축사 육성을 위한 해외 정책 사례

상대적으로 자유방임을 추구하는 신자유주의로 인한 소수 기득권의 시장 주도는 우리나라만이 아니라 어느 정도는 전 세계적으로 보편화된 현상이다. 다만 이에 따른 부작용을 최소화하는 등 이를 극복하기 위한 국가적 고민과 노력 측면에서는 상당한 차이가 있을 수 있는데, 건축 분야 역시 예외는 아니다. 유럽과 일본 등 건축 선진국에서는 비교적 오래전부터 그 필요성에 대한 인식하에 장기적 안목으로 다양한 신진 건축사 육성정책을 펼쳐왔다.

근대 이후 사실상 세계 건축설계 흐름을 주도하고 있는 유럽의 경우 약 20년간 진행해 온 프랑스의 PAN(Programme Architecture Nouvelle) 설계경기를 계승하여 1988년부터 40세 이하 신진 건축사 대상 설계공모인 유로판(Europan)을 유럽 전체로 확대하여 개최해 오고 있다. 최근에는 유로판 수상자로 주축을 이룬 MVRDV, S333 등이 세계적 설계사무소로 성장하는 등 유로판은 신진 건축사 지원 정책의 적극 펼쳐야 하는 필요성을 입증하는 대표적인 사례다.

세계적 건축 강국인 일본도 지난 1989년 ‘일본 건축가협회 신인상’을 제정한 후 매년 뛰어난 재능과 진지한 노력을 겸비한 우수 신진 건축사 발굴을 위해 많은 노력을 해오고 있다. ‘건축계의 노벨상’으로 불리는 프리츠커(Pritzker Architecture Prize) 수상자를 여섯 차례나 배출한 일본 건축 저력의 비결에는 여러 가지 요소가 있겠지

*

정부는 다양한 해외사례 분석 및 관련 전문가와의 협의·자문 등을 통해 ‘신진’의 기준을 ‘연령’으로 정하였다. ‘업계 활동기간’을 기준으로 하자는 소수의견이 있었으나, 중장기적으로 신진 건축사 육성·발전의 근본 취지를 살리기 위해서는 일정 연령 이하로 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것이 중론이었다. 다음으로 기준연령을 정하였는데, 해외 선례를 기반으로 군복무 기간 등 우리나라만의 특수한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만 45세 이하’로 최종 결정하였다.

만, 무엇보다도 젊은 건축가들의 실험정신을 존중하는 분위기가 그 밑바탕이 되었다*.

이 밖에도 소위 건축문화 선진국들은 일찍부터 YAYA(영국, Young Architect of the Year Award), 미스반데로에 상(유럽, Mies van der Rohe Award)과 같은 수상전을 지속적으로 개최하는 등 우수한 신진 건축사 발굴을 위해 다양한 노력을 해오고 있다.

그간의 추진 경위

우리나라는 국가 건축문화 진흥 등을 목적으로 지난 2007년 「건축기본법」을 제정, 동 법을 근거로 제1차 건축정책기본계획을 수립(2010.5.)하였다. 본 건축정책기본계획에서는 창조적 건축문화 실현 등을 목적으로 다양한 추진전략과 실천과제를 제시하고 있는데, ‘신진 디자이너 대상의 설계공모를 통한 신진 우수 설계자 육성’이 ‘건축산업 발전 기반 마련’을 위한 주요 세부과제로 정해진 바 있다. 이처럼 우리나라도 신진 건축사 육성을 국가 건축정책의 주요 과제로 설정하였음은 물론이고, 이를 뒷받침하기 위한 다양한 정책사업 발굴에 힘을 쏟고 있다.

현재 국토교통부가 추진 중인 신진 건축사 육성정책의 구체적 세부사업으로는 ‘신진 건축사 설계공모’, ‘신진 건축사 아이디어 공모’, ‘신진 건축사-건축전공 대학생 멘토링 프로그램’, ‘신진 건축사 대상(大賞)’ 등이 있다.

이들 사업 중 ‘신진 건축사 대상’은 국토교통부가 주최하며, 준공작 평가를 통해 그해 가장 큰 잠재력을 보여준 신진 건축사를 선정하는 수상전으로 올해 2회째 추진하고 있다. ‘신진 건축사-건축전공 대학생 멘토링 프로그램’은 ‘신진 건축사 대상’에서 상을 받은 신진 건축사와 건축 전공 대학생 간의 연계를 통해 신진 건축사에게는 단기 인력 총원 및 경험 전수의 기회를 제공하고, 대학생에게는 실무 수련과 미래 직업에 대한 이해를 증진할 수 있는 장을 마련해 주기 위해 올해 처음 시행하는 시범사업이다. 또 ‘신진 건축사 아이디어 공모’는 공공기관의 중장기 추진 예정사업에 대해 사업기획·디자인 콘셉트 등을 제출받아 최종 선정자에게 해당 사업의 설계권 대신 소정의 상금을 수여하는 공모전이다.

이러한 세부사업 중에서 신진 건축사들을 비롯해 건축계의 가장 큰 관심을 받는 사업이 바로 ‘신진 건축사 설계공모’다. ‘신진 건축사 설계공모’는 공모 참여자격을 ‘공모 공고일 현재 만 45세 이하의 건축사사무소 개설 신고자**’로 제한한 일종의 제한 설계공모로, 2012년부터 국토교통부의 주관 아래 지자체 등 공공발주기관이 함께 시행해 왔다.

사실 ‘신진 건축사 설계공모’는 응모 참여자의 풀(Pool)을 제한하는 것이기 때문에, 가능한 많은 응모 참여자를 원하는 해당 발주기관 입장에서는 일견 본 사업에 대한 참여 인센티브가 적을 수 있다. 따라서 시행 초기임에도 본 설계공모가 성공적으로 추진할 수 있던

* “건축은 문화 … 일본, 141년 전 이미 알았다”, 중앙일보 (2014.4.3)

** 설계공모 참여 공공기관의 사정 등에 따라 세부 자격조건에는 일부 차이가 있을 수 있다.

데에는 해당 발주기관인 지자체 등 각 공공기관의 참여의지가 원동력이 되었다. 본 설계공모의 취지 및 의미에 공감한 많은 공공기관의 적극적인 협조하에 그간 추진된 사업현황은 아래 표와 같다.

‘신진 건축사 설계공모’는 2012년 8건, 2013년 7건 등 올해까지 3년간 20건(2014년 예정사업 포함) 내외의 사업을 대상으로 하였다. 특히 주로 연면적 1,500㎡에 공사비 30억 원 내외 정도로, 상대

국토교통부 주관 주요 신진 건축사 설계공모 사업

공모연도	발주기관	사업명	건축연면적(㎡)	예산공사비(백만원)	설계비(백만원)
2012	경북 포항시	해동동 노인복지회관	825	1,829	77
	한국도로공사	평택제천선 동충주영업소	562	2,200	112
	한국수자원공사	경산 자인정수장 리모델링	926	1,644	100
	한국토지주택공사	청라 공공도서관	2,000	4,200	240
		영종 공공도서관	2,500	5,200	297
		대구테크노폴리스 공공임대아파트	4,819	82,502	1,299
	서울특별시 SH공사	공릉동 대학생기숙사	324	490	111.7
역삼동 공공원룸		810	1,280		
2013	부산광역시	청사포마을회관	350	800	59
	서울특별시 양천구	목동 보건지소	676	1,592	82
	경상북도 영주시	장애인종합복지관체육관	3,000	6,000	257
		노인종합복지관	2,500	5,000	206
	한국토지주택공사	대덕특구 문화여가복지시설	1,200	3,200	179
		청라국제도시 야외음악당	1,800	4,000	187
	한국수자원공사	합천댐관리단사옥	2,150	5,754	223
2014	경상북도 포항시	오천읍 복지회관	1,500	3,500	152
	한국수자원공사	대불정수장 환경개선사업	1,362	1,570	84
	충남개발공사	내포신도시복합커뮤니티시설	2,800	3,149	137
평균(※ 가장 큰 값과 작은 값 제외)			약 1,500	약 3,000	약 156

※ 2014년 사업은 현재(5월)까지 확정된 것에 한함. 하단의 평균값은 공사비 평균수치를 크게 상회하는 2012 대구테크노폴리스 제외



대덕특구 문화여가복지시설



인천청라야외음악당

적으로 규모는 작지만 건축사가 자신의 참신성을 담아낼 수 있는 성격의 공공건축물을 설계대상으로 하여 추진되어 왔다.

성과 및 한계

‘신진 건축사 설계공모’ 성과와 관련한 일차적이고 직접적인 이해당사자는 해당 발주기관일 것이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한국수자원공사 등 본 사업에 적극적으로 참여 중인 공공기관 담당자와의 인터뷰를 통해 확인한 만족도는 상당히 고무적이라 할 수 있다. 정부 정책 동참으로 유발되는 해당 사업에 대한 무무형의 홍보효과는 논외로 하더라도, 공공기관 입장에서 ‘신진 건축사 설계공모’ 진행으로 여러 성과를 거뒀다. 그중 대표적인 것이 ‘공모참여율 제고 및 이로 인한 최종 성과물 품질향상’이다.

사실 공공기관에서 발주하는 중소 규모 설계공모의 경우 현실적으로 기성 건축가 입장에서는 큰 관심의 대상이 아닌 사례가 많다. 따라서 이러한 사업의 공모를 신진 건축사들이 자신의 역량을 마음껏 펼칠 수 있는 장으로 제공함으로써 오히려 기존보다 해당 공모에 대한 참여율을 크게 높일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 실제로 2013년에 시행한 서울 양천구 ‘목동 보건지소’ 설계공모의 경우 약 8,000만 원이라는 비교적 낮은 설계금액에도 불구하고 70개사가 공모에 참여하여 큰 호응 속에 진행된 바 있다.

이렇게 기존 공공건축물 설계공모를 ‘그들만의 잔치’로 여겼던 우수 신진 건축사들의 높은 참여도는 자연스럽게 공모 당선작의 수준 향상으로 이어졌다. 영주시 ‘장애인종합복지관’ 공모에는 2013

년 ‘신진 건축사 대상’ 수상자인 디자인그룹 오즈건축의 최재원 소장이, ‘노인종합복지관’ 공모에는 2012 ‘한국건축문화대상’ 등을 수상한 보이드아키텍트의 장기욱 소장이 당선되었으며, 한국토지주택공사의 대덕특구 문화여가복지시설 공모에서는 서울시 신진 건축가 출신의 시담건축 김시원 소장이 최우수작에 선정되는 등 향후 우리 건축계를 이끌어 갈 많은 신진 건축사들이 ‘신진 건축사 설계공모’에 활발히 참여하였고, 최종 심사 때 여러 전문가로부터 아주 좋은 평을 받았다.

이러한 나름의 성과와 달리 ‘신진 건축사 설계공모’에서 대두될 문제점으로는 기존에 활동 중인 일반 건축사들에 대한 역차별을 들 수 있다. 실제로 정책 현장에서는 이와 관련한 민원이 간혹 제기되곤 한다. 하지만 앞서의 추진 경위에서 보는 것처럼 연간 ‘신진 건축사 설계공모’ 추진 건수는 전체 공공건축 설계공모 규모와 비교할 때 양적으로 큰 비중을 차지하지는 않는다. 따라서 기득권 과보호로 인한 신진들의 고사(枯死) 현상을 개선하자는 사업의 근본취지 등을 감안할 때, 일부에서 우려하는 문제는 우리가 대응적으로 충분히 감내하고 극복할 수 있는 것이라 판단된다.

‘신진 건축사 설계공모’는 지난 2012년에 처음 시행되어 올해로 세 번째 추진 중인 사업이다. 따라서 현 시점에서 그 성과와 한계 및 발전방향 등을 본격적으로 논하기에는 다소 시기상조일 수 있다. 하지만 현재까지의 추진 경과만으로도 그 지속시행의 필요성은 상당 부분 입증되었으며, 이제는 본 ‘신진 건축사 설계공모’의 안정적 추진을 위해 관련 내용의 법제화에 대한 적극적 논의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판단된다.

참고문헌

1. 엄철호 외, 「건축설계 발주제도 개선방안 연구」, 건축도시공간연구소, 2012
2. 『2013 신진건축사 설계 및 아이디어공모 작품집』, 국토교통부, 2013